

설교제목: “기쁨을 위한 믿음”

설교본문: 로마서 15 장 1~3 절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일을 믿음이라고 말해본다.

좀 더 성서적으로 말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일을 믿음이라 말해본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능하다.

유대교가 그렇다. 이슬람교도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는 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여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원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신분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억지로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까?

오늘 본문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면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일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웃고 행복해 하는 보기 위해 사는 일이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일을 말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기억한다.

믿음이란 남자가 되는 일이며, 사랑이란 여자(특히 어머니)가 되는 일이며, 소망은 아이가 되는 일이라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남자처럼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며, 용기를 내어 책임을 지는 일이며, 나아갈 길을 한 눈 팔지 않고 바라보는 일이다는 말씀이다.

사랑이란 어머니처럼 생명을 주며, 품어주는 일이며, 아파하며, 나누며, 치료하며, 희생하는 일이다는 말씀이다.

소망이란 아이처럼 꿈꾸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확신하는 일이다는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믿음은 남자가 되는 일이고 말씀 드렸다. 믿음을 생각하며 남자(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세상은 신비스럽게 남자가 절반, 여자가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자란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찾아지는 남성상이란,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며, 용기를 내어 책임을 지는 일이며, 나아갈 길을 한 눈 팔지 않고 바라보는 일을 말한다.

무엇이 결단이며, 무엇이 용기이며, 책임을 지는 일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다윗, 등,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무엇이 결단이며, 용기이며, 책임 있게 사는 일이지 알 수가 있다.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며, 간사한 꾀로 자기 유익만 구하며, 세상 강한 자에겐 굽실대며, 약한 자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것이 남성상이 아니다.

예화) 진짜 남자란?

오늘 본문 로마서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부끄럽게 하며, 그것으로 그를 공격하여 짓밟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잘 덮어주고, 그 약점을 자신의 믿음으로 담당한다. 믿음의 약한 자가 더 이상 약점이 보이지 않도록 돕는 기쁨으로 사는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의 사람이다.

목회를 하다보면, 그런 분들을 본다.

물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신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어 남의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금 있는 신앙까지 흔들어서 없애는 분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믿음을 잘못 가진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믿음을 오해했다.

우리 인간은 보면 볼수록, 만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라는 뜻은 약점을 잘 찾아 상대방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서로 만나 성도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러우며, 사랑스러우며, 위해 기도하게 되며, 축복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15: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도록 살게 하셔서 그 결과 우리가 피해만 받고, 손해만 보고, 고통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진짜는 이 일로 우리는 오히려 심판받아 멸망 받을 세상 사람에게서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15: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시비거리, 문제거리가 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필요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 없으며, 모든 것을 가지셨으며,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행복, 충만, 감사를 찾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행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 기쁨, 감사, 충만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공생애 동안 자신의 기쁨만을 찾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죄인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 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 살기에 기쁜 사람들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웃이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